

# 산은회장 “해외자본만이 해법”... 노조와 입장차만 확인

이동걸 “한국공장 폐쇄 없어... 독립경영 보장”

일반직 1500명 해외매각 지지... 노조 ‘사면초가’

## 산은회장-금호타이어 노조 만남

파국을 막을 수 있을까. 금호타이어 노조가 선택의 기로에 섰다. 노조가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에 따라 회사의 생사(生死)가 갈리는 것이다. 채권단과의 입장 차이도 여전히 간극을 좁힐 지 미지수다.

◇첫 만남...현격한 입장차=금호타이어 노조는 19일 오후 광주공장 노조사무실에서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과 간담회를 갖고 해외 매각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면담에는 이동걸 산업은행장과 유병수

산업은행 기업구조조정 1실장,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위원장, 조삼수 금호타이어 노조 대표회장, 정송강 금호타이어 노조 과장, 김현석 금속노조 광주전남지부장이 참석했다.

오는 30일까지 노사 합의로 ‘경영 정상화 계획 이행 약정서’를 체결하고 중국 타이어기업인 더블스타로 경영권을 넘기는 데 동의하지 않는다면 파국으로 가게된다. 노조는 양측은 진지하게 대화에 임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면담 뒤 기자회견에서 “노조 쪽에서 우려했던 상황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대응을 했다”

며 “주말까지 더 만날 것이고 그때까지 머무를 계획도 있다”고 말했다.

“인식 차이”도 드러났다. 노조는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했다. 금호타이어 안팎에서는 합의안 도출을 위해 조항원 설명회·총투표 등을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하면 이번주까지 의견 접근이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주말까지 집중적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머뭇·고용 불안 어떻게=해외 매각을 통한 고용 불안과 장기적 국내공장 유지·투자 계획 등에 대한 양측 입장차는 여전히 있다.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이날 노조와 면담 뒤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머뭇” 의혹에 대해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그는 “더블스타가 금호타이어의 타이어 기술을 가지고 (더블스타가 기술을 가지고 있는) 트럭 타이어를 생산할 수 없다”며 “더블스타가 광주·곡성공장 문을 닫아서 이익을 볼 것이 없다”고 말했다. 기술만 빼먹고 공장 문을 닫을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금호타이어가) 한국 마켓쉐어 30%를 차지할 정도로 매력에 있는데 그것을 포기할 이유가 없고, 현대차와 기아차에 납품도 하고 있는데 그것을 포기하고 시설(광주·곡성공장)을 뜯어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다”고 했다.

해외 매각 철학을 주장하는 노조와 달리, 이 회장은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을 정상화할 수 있는 기업은 중국 기업밖에 없고 유럽, 마주기업들이 (중국에) 들어가도 중국 공장을 정상화할 수 없다”는 말로

해외매각이 최선의 방안임을 강조했다. 국내 기업으로의 매각 가능성에 대해서도 “투자자 물색과정에서 더블스타를 포함한 국내의 우수 타이어회사, 시너지가 발생할 수 있는 국내 대기업 등 다양한 잠재후보군과 접촉했으나 더블스타 만큼의 투자조건과 경영에 대한 진정성을 보여준 경우는 없었다”고 했다.

그는 “더블스타는 한국공장 폐쇄는 없으며 독립경영체제 등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겠다”는 경영계획을 밝히기도 했다”면서 “이번 투자유치는 국민경제와 지역사회에 미칠 파장을 최소화하고 금호타이어를 조속히 정상화하기 위해 대졸급 회수 대신 채권단 추가지원까지 감내해서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호타이어 일반직 직원 1500여

명은 이날 서울 금호타이어 본사 앞에서 법정관리 반대와 해외자본 유치 찬성의 내용을 담은 성명을 발표했다.

직원들은 성명에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 영업량 붕괴 및 정상적 영업활동 불가, 유동성 부족에 의한 생산 활동 제약, 중국 및 미국 공장 파산, 완성차업체 등 고객의 신뢰 상실로 결국 파산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직원들은 “다른 선택지가 없다면 해외 자본 유치가 무조건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고용보장 약속과 지속성장을 위한 투자를 요구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는 것이 현명한 자세”라며 오는 21일 광주 공장 앞에서 같은 내용의 성명을 발표한 후 노조에 일반적인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광주은행 고향사랑 나눔 실천 광주·전남사랑카드 이용액 기부



광주은행은 19일 전남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사회공헌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송종욱 광주은행장, 이재영 전라남도지사 권한대행, 노동일 전남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회장. <광주은행 제공>

광주은행(은행장 송종욱)은 19일 전라남도청에서 전남도,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고향사랑나눔운동 추진을 위한 사회공헌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식에서 광주은행은 ‘광주·전남 사랑카드’ 이용금액의 0.5%를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고, 전남도는 전남 22개 시·군 지역내 소외계층, 저소득층 등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사업 대상 발굴을 지원하기로 했다.

광주·전남 사랑카드는 골프장 이용금액 10만원당 5000포인트 적립과 패밀리레스토랑·커피전문점·온라인쇼핑·예매·교통업종 이용시 10%포인트 적립 등 월 최대 3만 포인트 적립의 혜택을 제공한다. 그린카드 멤버십 서비스도 탑재해 고객이 전국 지자체 공공시설 이용시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히 광주·전남 사랑아너스 카드는 VIP 고객을 위해 출시하는 카드로 바우처 서비스, 공항라운지무료이용서비스 등의 프리미엄 서비스를 제공하며, 2018년 특별 이벤트로 호텔 라운지 무료이용, 호텔 사우나 무료입장 등의 혜택을 추가 제공한다.

광주·전남 사랑카드 연회비는 국내전용 8000원, 해외겸용 1만원, 광주·전남 사랑 플래티늄카드는 국내전용 11만8000원, 해외겸용 12만원, 광주·전남 사랑 아너스카드는 국내전용 29만8000원, 해외겸용 30만원이다.

광주은행 관계자는 “광주·전남 사랑카드를 이용함으로써 고향에 대한 향수와 사랑을 다시금 되새기며 나아가 지역사회에 기부문화가 확산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2475.03 (-18.94)	금리 (국고채 3년) 2.28% (0.00)
↓ 코스닥 880.97 (-13.46)	↑ 환율 (USD) 1071.60원 (+5.40)



광주세무서 공익법인 간담회. 광주세무서(서장 전태호)는 최근 관내 공익법인들을 대상으로 법인세 신고안내와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전태호 서장은 공익법인 실무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일자리 안정자금신청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줄 것을 강조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 열리지 않는 대기업 취업문

40% “상반기 채용계획 없다”...10% “규모 감축”

대기업 10곳 중 4곳이 올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고 10곳 중 1곳은 올 상반기 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거나 아예 뽑지 않을 계획을 세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이 여론조사기관 리서치앤리서치에 의뢰해 매출액 500대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한 ‘2018년 상반기 신규 채용 계획’ 결과에 따르면 응답 기업 182개사 중 80개사(44.0%)가 올해 상반기 채용 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는 전년도 같은기간(37%)보다 7.0%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또 상반기 신규채용 규모를 작년보다 줄이겠다는 기업은 9.3%(17개사)로 조사됐고 5곳(2.7%)은 아예 채용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결과, 채용을 줄이거나 하지 않겠다는 기업(22곳·12.0%)은 채용을 늘린다는 기업(16곳·8.8%)보다 많았다는 점에서 취업준비생들의 취업난도 여전한 전망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 中企 바로 알리기 아이디어 찾아요

내달 21일까지 공모

중소기업중앙회(회장 박성택)는 19일 초·중·고·대학생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중소기업에 바로 알리기 위한 동영상, 포스터 등을 공모하는 ‘중소기업 바로알리기 IDEA 공모전’을 진행한다

올해 9번째 열리는 이번 공모전은 중소기업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확산하기 위한 행사로, 이번 주제는 ‘청년 고용의 주역, 중소기업 바로 알리기’다.

응모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동영상, 포스터, 수필의 ‘일반부문’과 학생들을 지

도한 교사를 대상으로 한 ‘지도자보고서’ 부문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응모기한은 오는 4월 21일까지다.

올해는 대상, 부문별 최우수상, 우수지도자상 등을 포함하여 총 47명에게 상장 및 부상이 수여될 예정이다.

대상·부문별 최우수상·우수지도자상 수상자에게는 부총리겸 교육부장관상과 부상이, 우수상 수상자에게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상과 부상이 주어진다.

자세한 내용은 ‘행복한중기씨 블로그’(smallgiantk.blog.me)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기용기자 pboxer@

## 13개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 참가업체 모집

aT, 26일까지 접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사장 이병호)는 19일 올 하반기에 개최되는 국제식품박람회 한국관에 참가할 업체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aT는 홍콩,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세계 각국에서 올해 하반기에 개최되는 13개 종합식품박람회와 신선농산물박람회에 한국관을 구성해 참가할 예정이며, 함께 한국관을 구성할 농식품 생산업체와 수출업체를 모집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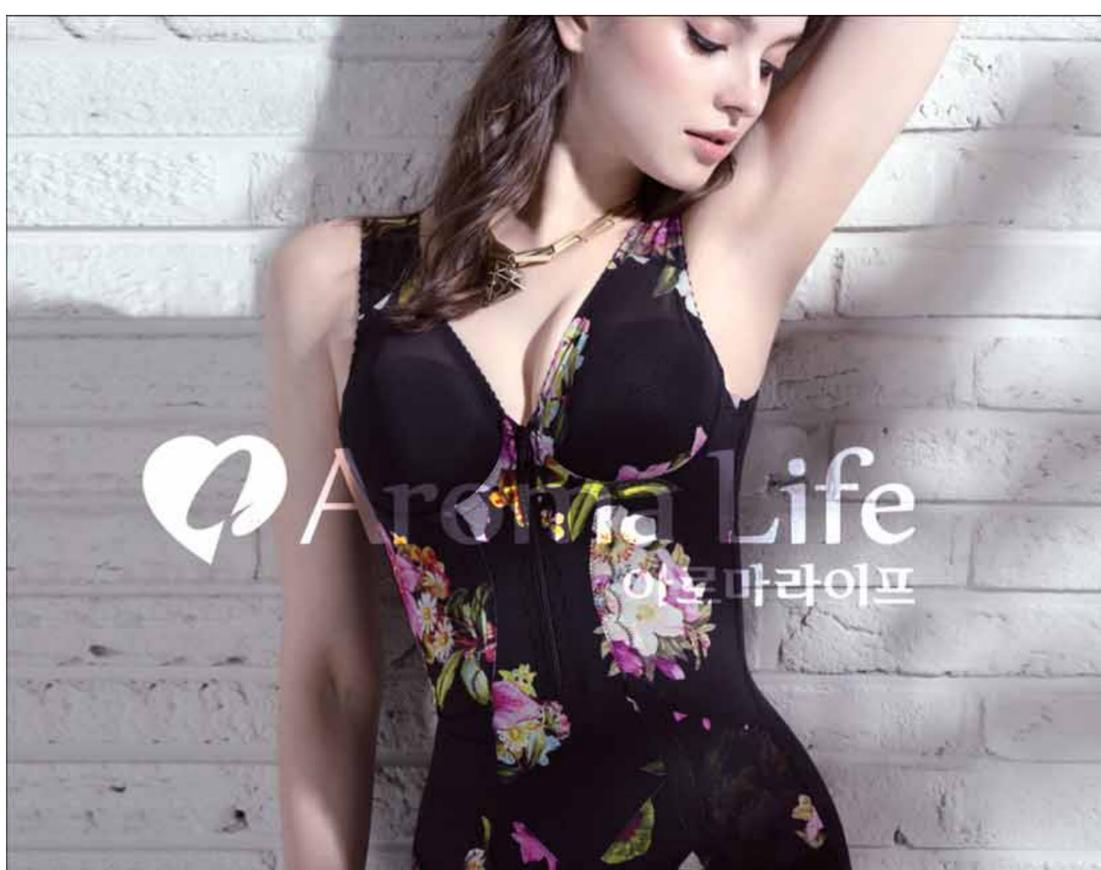
참가를 희망하는 업체는 aT 홈페이지(at.or.kr)를 통해 오는 26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각 업체별로 3개 박람

회까지 신청이 가능하다. 한국관에 참가 신청이 된 수출업체는 1개 부스를 무상 지원받으며, 신선농산물 참가사의 경우 운송통관비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aT가 별도의 통합한국관으로 참가하지 않는 국제식품박람회에 농식품 수출기업이 개별적으로 참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최대 7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출업체도 이번 모집을 통해 선정할 계획이다.

각 업체가 주력품목과 사업전략에 맞는 박람회를 스스로 선택해 자율적으로 특세장을 개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박기용기자 pboxer@kwangju.co.kr



몸매보정 된다는데, 순환안되고 갑갑함쯤이야 ?

아닙니다. 니를위해 포기할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능성속옷 장수기업

### 가능성 속옷 의명가

KCPBA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2034, 2035, 2036, 2037, 2038, 2039, 2040, 2041, 2042, 2043, 2044, 2045, 2046, 2047, 2048, 2049, 2050, 2051, 2052, 2053, 2054, 2055, 2056, 2057, 2058, 2059, 2060, 2061, 2062, 2063, 2064, 2065, 2066, 2067, 2068, 2069, 2070, 2071, 2072, 2073, 2074, 2075, 2076, 2077, 2078, 2079, 2080, 2081, 2082, 2083, 2084, 2085, 2086, 2087, 2088, 2089, 2090, 2091, 2092, 2093, 2094, 2095, 2096, 2097, 2098, 2099, 2100

한국, 미국, 일본, 중국특허 | 편안한착용감 | 해당심층수 각종미네랄  
부위별로 특별하게 | 탄성GOOD! 흡습성GOOD! | 이온, 실리카미노산,  
생리적인 불편을 해시 | 일본 도레이社 LYCRA | 원적외선 특수물질 가공  
별단면속각형 사용

www.aroma-life.co.kr

# 1588-2219